# 문학·클래식 감성 콘서트 '담담'

## 전주 문화공간 이룸,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

전주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이 오는 9월,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인문예술 콘서트 '澹談(담담) - 시, 음악 속을 걷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시 낭독과 문학 해설, 클래식·재즈·창작 음악이 결합된 융합 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공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 회차는 한 명의 시인을 중심으로 시 낭독과 해설, 음악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며,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무대와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첫 회는 국민 시인 정호승이 무대에 올라 대표 시를 낭독하고, 클래식 앙상블 봄빛남매의 연주와 함께 시와 음악의 감성을 확장한다.

이어 9월 11일 공연에서는 김종삼 시인의 절제된 언어와 침묵의 미학을 바탕으로 바흐와 드뷔시 곡을 연주하며, 원광대학교 김정배 교수가 시와 음악의 정서적 연결을 해설한다.

9월 18일에는 강윤미 시인이 직접 시를 낭독하며, 피아니스트 오은하의 연주가 더해져 관객에게 감성적 위로를 전한다.

마지막 9월 25일 공연은 윤동주 시인 순국 8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대표 시들을 바탕으로 창작 밴드 인문 밴드 레이가 현대적 음악을 선보이며 문학과 음악의 시대적 교감을 재구성한다.

공연 기획을 맡은 문화공간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담담은 단순한 낭독과 연주를 넘어, 시와 음악이 서로의 깊이를 비추는 하나의 감성적 언어로 관객에게 울림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시인과 연주자, 해설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전북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예술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민들의 많은 관람을 희망했다.

'澹談(담담) - 시, 음악 속을 걷다' 포스터

티켓 예매는 네이버 예약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문화공간이룸(063-223-53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6일과 13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2025년 '소리 판 완창무대'의 네번째와 다섯번째를 공연한다.

이 무대는 판소리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추진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으로, 9월 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자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박수현이 무대에 올라 동초제 심청가 완창을 선보이며, 고수에는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조용안과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김준영이 맡는다.

9월 13일은 국립창극단 단원 나윤영의 만정제 춘향가 완창 무대로, 만정제는 김소희 명창이 집대성한 유파로 절제된 가락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며, 이번 무대에는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조용안, 정읍시립국악단장 조용수가 고수로 함께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소리프론티어 '우리음악집단 소옥' 우승

###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 넥스트' 쇼케이스 프로그램… 유럽 무대 진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전통음악 기반 예술단체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작품 유통과 실질적인 협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플랫폼 '소리 넥스트(SORI NEXT)'의 쇼케이스 프로그램 〈소리프론티어〉을 통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소리축제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로 '소리 넥스트'를 새롭게 론칭, 기획·공모 쇼케이스, 토크, 팸투어,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중 〈소리프론티어〉는 공모형 쇼케이스로 기존 신진 발굴에 중점을 뒀던 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도울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우리음악집단 소옥'으로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시대의 감각에 맞춘 대중적인 음악을 지향하고 있는 팀이다.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6월 참가자 공개 모집 후 7월 12일 실연 심사를 통해 총 4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은 이후 합숙 워크숍인 '슈퍼위크'에 참여했으며, 소리축제 기간 중 '소리 넥스트'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객들에게 각자의 음악을 선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음악집단 소옥'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심사는 천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계명국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감독, 이수정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국내 전문가들과 바네사 첸 웨이유잉 국립가오슝아트센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레이첼 쿠퍼 아시아 소사이어티 감독, 클라우디아 발라델리 아쉐 월드 페스타 공동 창립자 등 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으로 선정했다.

한편 선정된 '우리음악집단 소옥'은 최고 특전인 해외 쇼케이스의 기회를 갖는다. 오는 10월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의 한글날 기념 공연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소피아뮤직위크 등 유럽에서 공식 데뷔 공연을 펼친다. /장은성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 1부 '깡패와 장구' (18)

# 도둑잽이굿

-오상근-

사회자는 이명주에 대해 설명을 더 해갔다.

지금의 고창농악전수관과 고창농악보존회가 정립된 계기와 기틀을 그녀가 마련하였으며 해마다 농악전수관을 거쳐간 연수생의 숫자가 늘고 있고, 7년 전에는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문에서 고창농악이 장원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고, 올 초에는 일본 후쿠오카에도 초청되어 초청공연을 연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늘 공연할 도둑잽이굿은 3년 전에 30년 만에 굿이 재연된 이후 두 번째 공연이라 했으며, 이 굿은 고창농악의 특징인 가락과 춤의 조화가 잘 이뤄진 공연으로 판굿의 대표라 할 수 있는데, 판굿은 정해진 장소에서 행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굿인 문굿, 길굿, 조앙굿, 천룡굿, 샘굿, 당산굿 등을 끝내고 판이 마련된 동네 광장에 마을사람들과 연행자들이 모두 모여 마음껏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흥을 내는 굿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관객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나 친구 혹은 연인 사이들이 많았고 동식처럼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름지기 건달의 포지션을 유지해야할 자리는 술집이나 룸살롱,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다. 좀 침침하고 어둑어둑해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쌍욕을 하고, 나라에서 금하는 짓을 좀 진행해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그런 곳이 건달에게는 잘 어울리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조폭이 농악공연장에 앉아 있다니,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농악은 우리민족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고결함과 깨끗함을 품고 있는 민족정신이다. 하찮은 깡패가 참여해서 어울린다면 어쩐지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이 드는 것이 동식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마음이고 농악공연장에 와 앉아 있는 지금만큼은 동식은 건달이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농악이 좋아서, 아니 사회자가 말한 대로 굿이 좋아서 굿판이 좋아서 찾아온 필부에 불과하다.

굿이 시작되었다. 나발의 깊고 넓은 음이 길게 소리를 내어 공연장을 보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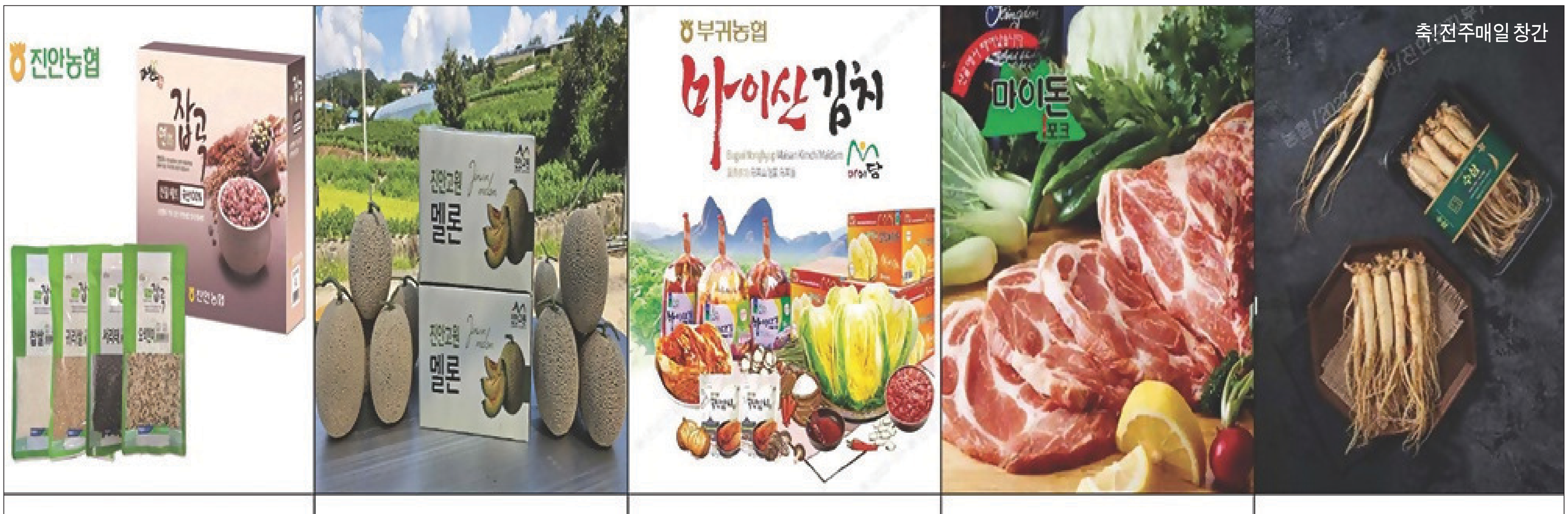
농자천하지대본 깃발과 고창농악보존회 깃발이 들어왔고, 잠시 후 무대 뒤에서 땅과 하늘 온 천지의 만물을 깨우는 꽹과리 소리가 울리고, 이어서 장구와 징, 북과 소고의 종합 연주가 들린 뒤에 새납의 구슬프면서 애잔한 고음과 함께 얼굴에 가면을 쓴 잡색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총을 들고 머리에 대장군 모자를 쓴 대포수, 곰방대를 들고 정자관을 쓴 영감, 머리에 가채를 쓴 망구, 부채를 들고 갓을 쓴 참봉, 붉은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노랑 고깔을 쓴 각시, 목탁을 들고 머리에 승낙을 쓴 조리중, 적색 두루마기에 붉은 고깔을 쓴 홍적삼, 종이로 만든 부포를 쓴 비리쇠,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꿩털을 세운 패랭이를 쓴 좌창과 우창이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등장하였다.

잡색들의 뒤를 이어 치배들이 역시 느린 걸음으로 디딤 발을 옮기며 가락을 연주하면서 들어왔는데, 흰바지 저고리에 빨간 더그레에 부포를 쓴 상쇠를 필두로 같은 복색의 여러 명의 꽹과리와 흰바지 저고리, 파란 조끼에 고깔을 쓴 징과 소고, 북, 장구 연행자들이 줄줄이 이어서 들어왔다.

연주는 느리게 이어지다가 빠른 박자로 속도를 올리면서 공연장을 채웠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갔다가 몰려오고 흩어졌다가 하나로 모여들고 하면서 일정한 박자로 빠르게 연주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한자리로 모여들더니 모두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나발소리를 필두로 상쇠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징소리가 이어지고 곧 이어 장구와 북 소고가 뒤를 받쳐주면서 다시 몸을 일으킨 연행자들은 똬리를 틀 듯 천천히 거리를 좁혀 돌아가면서 징소리와 꽹과리에 맞춰 연주를 이어갔다.



진안농협 | 백운농협 | 부귀농협 | 무진장축협 | 전북인삼농협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변성섭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